

데이브 매튜슨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5,

요한계시록 2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에 관한 세션 5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요한을 통해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 묵시적인 예언을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진단하고, 평가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일곱 글자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논의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문제는 요한이 식별했거나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일곱 별을 일곱 교회의 천사로 식별한 1장의 끝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질문 중 하나는 일곱 교회의 일곱 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해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메신저나 그와 유사한 것을 지칭하는 데 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곱 천사를 일곱 사자, 즉 실제로 인간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읽은 한 논평에서는 실제로 일곱 명의 사자가 함께 여행하며 일곱 교회 각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곱 명의 사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의 일곱 지도자 또는 각 교회의 장로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들이 초자연적인 존재, 즉 실제로 천사 같은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묵시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고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일이 조금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에녹서와 다른 묵시적인 유대 묵시 작품과 같은 일부 묵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주 발견하는데, 이것은 종말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것이 연극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뿐입니다.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종말은 역사 뒤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 하늘의 세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하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묵시록에서 발견하는 것 중 하나는 종종 지상의 사람이고 기관에는 종종 그들 뒤에 천사, 하늘의 대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사들을 지상 교회의 하늘의 대응자 또는 하늘의 대표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각 교회, 모든 교회에 하늘의 수호자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묵시적인 방식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상응하는 부분이 있고 하늘의 현실에 반영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의 일곱 천사가 아마도 묵시적인 관점의 일부로서 요한이 말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하늘에 있는 대표자이거나 하늘의 대응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평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것이 묵시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우리가 할 일련의 관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로 부르거나 식별함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예이지만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성전 이미지를 가져와 교회에 적용하는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이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특징인 일곱 등잔대는 성전 장막의 일부로서 이제 교회를 대표하거나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이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들이 왕국이요 제사장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또한 성전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분의 빛이 되시며, 그분의 성전으로서 일곱 등잔대로 표현되고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제 2장과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은 요한을 통해 높여지고 부활한 인자, 하늘에 속한 인자,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전하는 권위 있는 메시지를 일곱 교회에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에 별을 쥐고 계시는 분, 교회의 주권자, 모든 교회의 권위자로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의 교회들도 있고 또한 교회 가운데도 계시는 이시니라 그가 등대 사이로 거니신다는 사실로 표현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제 자신의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교회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의 교회와 함께하는 그의 존재는 교회에 위로와 격려 또는 경고를 가져오고 의미할 것입니다. 타협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거를 유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의 경고인 권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 즉 소아시아의 서쪽 부분, 즉 현대의 터키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일곱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실 곳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 자체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 이 교회들에 전달하신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7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이고 확실히 종말과 일곱 교회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점을 벗어났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전반적으로 말하고 싶은 첫 번째 관찰은 무엇보다도 일곱 교회가 모두 로마 제국 통치의 중심부에 위치한 실제 역사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로마 속주 중 하나에 속해 있으며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문에서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통치, 로마 제국 통치, 로마 제국의 통치가 지배하는 환경에 살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결합되어 있는 상업과 로마의 정치와 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어린양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확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기된 유혹과 문제들.

로마제국의 상황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몇 가지 문제, 그것이 그들에게 야기한 문제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모두 로마 제국 통치의 중심이자 황제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해야 할 것은 흥미롭게도 소위 이 7개의 문자는 종종 문자로 표시되지만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읽을 때 흥미롭습니다. 편지처럼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버가모 교회의 천사나 서머나 교회의 천사, 에베소 교회의 천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쓰는 편지처럼 시작합니다.

그것은 편지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편지의 형식과 닮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 대신, 나는 이것이 실제로 예언적 선언이나 예언적 메시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 자료 중 일부라도 그가 말할 때 이것은 그의 말입니다. 이 언어 중 일부는 구약의 예언 텍스트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나 위로의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편지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편지보다 더 정확한 것은 요한이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 즉 예언의 선포나 메시지를 그 방식대로 일곱 교회에 전하고 있다는 것, 또는 예언의 선포나 메시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적 메시지.

흥미롭게도 David Ani는 실제로 한 두 편의 기사와 Word Biblical Commentary 시리즈의 세 권으로 구성된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 편지들이 왕실 또는 제국의 칙령과 매우 유사하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발견되지만 로마 제국에서도 발견됩니다. 왕의 칙령 또는 황제의 칙령은 왕, 통치자, 황제가 백성에게 내리는 칙령이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생각은 이제 왕이신 예수, 고귀한 통치자이자 왕이신 예수가 이제 그의 신민, 즉 그의 백성, 즉 이 일곱 교회에 칙령이나 제국의 칙령 또는 포고령을 내린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일곱 글자로 표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에 전달된 일곱 개의 예언적 메시지로서, 아마도 왕이나 통치자가 자신의 백성에게 지금 예수께서 주실 칙령이나 왕실 칙령의 형태일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글자들에 관해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잘 알려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일곱 글자를 읽으면서 찾아보시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큰 부분을 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요한계시록은 독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굴러가서 그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 앞에 지나가도록 하여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곱 가지 메시지도 읽어보겠지만, 읽으면서 세 번째 요점은 그것이 드러내는 유사한 구조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모두 빈칸 채우기 교회, 서머나,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등 어느 교회의 천사에게 말을 걸면서 시작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시가 뒤따릅니다.

그런 다음 1장의 성격 특성을 사용하여 각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식별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섹션이 이어집니다. 나는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알고 계신 상황이 설명된다.

그 다음에는 칭찬이나 비난이 따릅니다. 때로는 둘 다 약간 혼합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는 당신이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교회는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이 두 교회만이 그들의 신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까닭이니라. 적어도 한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그곳이 바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나 비난이냐. 다섯째, 나누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미래의 축복에 관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편지 한 권 한 권을 모두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된 미래의 종말론적 축복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대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듣는 이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비유에서 이 문구를 사용하신 방식에 따라 귀가 있는 사람이 듣도록 하십시오.

귀 있는 교회들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언적 경고이자 권고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거나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듣고 주의해야 하며, 교회는 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예언적 경고입니다. 순종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식별하는 것, 그러면 나는 상황을 알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 칭찬이나 정죄,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알며, 그런 다음 이 다섯 가지에 주의하십시오. 이긴 자에게 미래의 종말론적 축복을 약속하고, 마지막으로 듣는 자에게 부르심을 줍니다. 이들 중 대부분 또는 전부의 일부 변형이 일곱 글자 각각에서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에서 나옵니다. 즉, 7개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통합되어 있고 이것이 몇 가지 다른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일곱 가지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전, 2장과 3장 이후에 명확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대로 일곱 메시지는 모두 1장 12~16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의 일부로 시작합니다. 이제 1장의 인간에 관한 내용은 2장과 3장의 각 교회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으면, 우리가 보여줄 각 교회를 위해 선택된 각각의 특징, 즉 특정한 특징이 각 교회의 문제나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고 빛난 구리의

발과 불꽃같은 눈과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며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 등등, 그러한 특징 중 하나가 각 편지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루고 있는 문제나 이슈와 특별히 관련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또 다른 사실은 축복의 약속, 즉 이긴 자에게 대한 미래의 종말론적 축복이 바로 20장부터 22장까지 나온다는 점에서 그 뒤에 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함, 둘째 사망을 이기음,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등에 대한 언급. 그 모든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 중 일부는 교회가 이기면 교회에 약속된 것으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언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실한 증언의 언어, 속이는 언어, 기타 다른 유형의 언어도 나중에 4장부터 22장까지 반영됩니다. 따라서 2장과 3장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 1장과 복잡하게 연결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특히 마지막 장에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미 숫자 7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숫자 7은 문자 그대로의 숫자 7, 일련의 7, 일련의 7뿐만 아니라 그 상징적 가치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숫자 7이 완전함과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전 자체에 앞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7이 우선 에베소, 두아디라,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등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문자 그대로 역사적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숫자 7은 아마도 7일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고, 완전함은 교회를 더 광범위하게 상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제안하기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더 이상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일곱 교회가 실제로 교회 역사의 일곱 단계 또는 일곱 기간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읽는 것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20세기와 지금 21세기의 우리 현대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의해 예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시작하는 일곱 교회는 우리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의 연속적인 일곱 시기를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어려움은 적어도 두 배입니다.

첫 번째는 John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힌트, 그가 실제로 메시지를 연결하거나 예측하고 있다는 힌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지만 이기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 외에는 요한이 실제로 교회 역사의 미래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는 힌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 요점은 이 일곱 교회와 그들을 둘러싼 문제들이 실제로 이미 1세기에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라는 것이 나에게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 역사의 미래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는 일곱 교회와 1세기에 역사적 교회들이 이미 직면했던 일곱 가지 구체적인 상황, 문제, 쟁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으로 보는 것을 배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1세기에 이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이 편지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교회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편지 메시지 중 어느 하나도 교회사의 특정 기간으로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 대신에, 나는 교회의 일곱 가지 메시지를 1세기에 이미 일곱 교회와 다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슈와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에 반영될 수 있는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까지 이어진 교회사. 그래서 저는 7이라는 숫자가 교회사의 7단계를 예언하기 때문에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교회 역사의 모든 기간을 특징짓는 신실함과 불성실함의 전체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적어도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의 맥락에서 읽으면 아마도 미국 교회가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장 유사하다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숫자 7이 아마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구체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1세기의 교회를 더 광범위하게 나타내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양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신실함과 불신앙의 전체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시대와 장소가 다르다. 우리가 이미 암시한 일곱 교회에 관해 말할 여섯 번째는 당신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 중 다섯 교회가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고 대개 타협이나 안주와 관련된 다소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면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 교회 중 일부는 아마도 그들 모두는 아닐 수도 있고 일부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타협하고 로마 문화와 로마 문화에 완전히 몰입하려고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포함한 상업과 종교를 금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배타적인 숭배와 충성을 침해합니다. 다섯 개의 교회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 5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 5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중 단 두 교회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박해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이 두 교회만이 정죄나 부정적인 평가 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식에 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계시록은 이 접근법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는 아닙니다. 적어도 두 교회에 대해 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나 배타적으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그것은 기꺼이 타협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증거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 대한 경각심과 경고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2장과 3장이 어떻게 일곱 교회가 4장부터 22장까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4장,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4장은 일곱 교회의 문제를

좀 더 직설적으로 진단하고 설명하는 일곱 교회의 메시지에 따라 일종의 환상적 부분 또는 묵시적인 부분을 소개합니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 묵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하늘이 열려 있는 환상 자체를 시작합니다. 천국은 열려 있고 요한은 천국에 가서 천국의 모습을 보도록 초대받습니다. 환경과 하늘 영역,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22장의 대부분을 통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환상을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여러 번 두 섹션을 분리하는 데 너무 열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한이 2장과 3장에서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더 상징적인 방식으로 말합니다.

즉, 4장부터 22장까지의 환상 부분은 요한이 일곱 교회의 메시지에서 2장과 3장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똑같은 것을 언급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요한이 2장과 3장에서 말한 것이 이제 더 상징적이고 더 은유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정확히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2장과 3장의 교회 상황을 더 자세히 해석하게 됩니다. 즉, 2장과 3장의 교회 상황에 대한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비전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각 교회는 그리고 3명은 2장과 3장의 상황이 4장부터 22장까지 상징적 형태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교회에서 4장부터 22장까지가 그들의 특정 상황에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황, 영적 상태에 따라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다른 방식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안주하고 타협하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든,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4장부터 22장에 계시되고 구체화된 그들의 상황에 따라 그들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4장부터 22장까지 일하면서 이미 말했듯이 교회에 주신 약속, 즉 이기는 자들은 구원의 축복의 형태로 종말론적 약속을 받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종종 20장부터 22장까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장과 3장의 용어와 주제 중 일부가 4장부터 22장까지 더 완전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는 중요한 원리는 4장부터 22장까지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2장과 3장에서 한 가지 일을 하고 4장부터 22장까지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4장부터 22장은 상징적 묵시적 이미지로 그가 조금 짧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교회의 상황과 영적 상태에 따라 각 교회는 4장부터 22장까지를 자신들의 고유한 상황을 다루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자기 만족에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언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본문의 일부인 모든 이미지, 구절, 본문을 검토하지 않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첫째, 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도시의 역할과 관련하여 도시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설명합니다. 나는 각 편지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고 싶은데, 그것이 저자가 제기한 문제이다.

그러면 다시 각 교회에 보내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자는 칭찬, 정죄의 방식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각 교회가 4장부터 22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장부터 시작하여 1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준비되었으며 이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로 시작하는데, 그 천사는 아마도

인간 사자나 인간 지도자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늘의 대응자, 즉 지상 교회의 하늘 대표자일 것입니다. 일곱 가지 메시지에 대해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것이 상식이며 고대 소아시아, 소아시아 서부의 어느 지도를 보면 이를 매우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는 일곱 교회를 모두 둘러싸는 순환로상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즉, 에베소를 기점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이 전형적인 순환 경로로 방문했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이 교회를 방문할 때 때때로 택했던 경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교회들 사이에서 예언 사역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그가 택한 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언급되는 순서는 순회, 순환 경로로 방문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 제국에서 그 중요성 때문에 첫 번째가 될 수 있으며, 에베소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은 그것이 먼저 발생한다는 사실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마도 소아시아의 이 지역, 즉 로마 속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당시 인구는 약 25만 명, 즉 25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에페소스가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에베소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신 아르테미스 또는 다이애나입니다. 로마 또는 그리스 이름인 Artemis 또는 Diana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읽으면 그 맥락에서 바울이 아르테미스와 대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아르테미스는 단순히 다산의 여신이었고, 상업적으로나 번영에서 일어난 일이 그에 속한 수호 여신에게 귀속되는 또 다른 예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에베소는 여신 다이아나나 아르테미스와 이교 종교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제국 숭배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1세기 마지막 10년 중반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통치했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과 요한을 통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나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나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며 지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겪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절, 그러나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떨어진 높이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그대로 하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 곧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선,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식별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을 붙잡고 그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분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또한 그들을 통제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의 상황을 진단하기 시작하실 때 그들이 등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2장 5절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별을 붙잡으신 분, 등대 한가운데에 계신 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별을 제거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즉,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들의 신실한 증인인 등잔대를 옮기실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나 에베소 교회가 두 가지 칭찬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처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 아마도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난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것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동시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은 첫사랑을 잃었고, 증거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에베소 교회가 아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매우 정통적이고 심지어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첫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내가 잠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6절에서 John은 부정적인 평가를 한 후 다시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섰습니다. 6절에서는 “네가 은혜를 입은 것이니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니골라당은 로마 속주 에베소라는 도시의 맥락에서 로마제국의 이교적 우상 숭배 문화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던 집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했지만 실제로는 사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교회는 그들의 믿음과 가르침에 있어서 매우 정통적이며 그들은 이교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와 이교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그들의 가르침의 교리적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첫사랑도 잃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에 대한 사랑, 그들이 잃어버린 다른 기독교인에 대한 사랑, 그들이 정통 신앙에 너무 열중하여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두 가지를 결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번째 견해를 취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등잔대 가운데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등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2장 5절에서는 등대를 옮기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정통적인 순수성에 대한 관심을 견지하면서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더 이상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분의 충실한 증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세상에서 증거의 원동력이 되었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적 올바름은 세상에서 그들의 신실한 증거를 야기해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은폐할 수 없거나 가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회개하라는 것, 즉 그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그들의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기기 위해 받는 약속은 생명나무이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과 2절과 연결하는데, 그 내용은 원래 에덴동산 낙원에 있던 생명나무를 포함하는 새 창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22장의 새 창조는 에덴동산 또는 에덴동산으로의 회귀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의 에덴동산 창조 조건을 회복하는 것이요,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교리의 정확성을 더 중요시하는 이 교회에 대한 약속으로 제시됩니다. 극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승리를 요구할 때, 다시 승리는 각 교회에 대해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여기서 극복한다는 것은 죽음과 고통에 이르기까지 타협을 거부하고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일곱 교회 각각에 대한 극복하라는 명령의 대부분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교 사회와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죽기까지 이 세상에서 신실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이제 에베소교회는 종말론적 구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왕국인 새 창조를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교회. 2장 8장부터 11장까지는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다음 순환 경로의 다음 도시는 서머나 교회로 북쪽으로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머나는 제국 숭배의 또 다른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서머나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유대인 인구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인구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서머나 교회를 반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와 함께 부정적인 보고를 받지 않은 유일한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비록 이 교회가 분명히 제국주의 숭배와 숭배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당한 유대인 인구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서머나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있는 이 곧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나는 네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너는 부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아노니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니라 당신이 겪게 될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 너희가 열흘 동안 핍박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전혀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그 교회가 아마도 일곱 교회 중 어떤 종류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가장 가까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시점에서 아직 믿음을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어떤 유형의 박해를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교 신들과 그와 유사한 것들을 숭배하는 것, 특히 유대인들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들을 비방하는 자들, 즉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당은 사탄의 회당입니다. 즉, 1세기에 가능한 시나리오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기 유대교는 대부분 로마 정부 하에서 보호를 받으며 유효한 종교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였으나, 기독교가 많아질수록 일부는 유대교를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해 매우 성급하게 기독교인을 지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복적이고 타협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고, 유대인의 일관성 중 일부가 그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했을 수도 있으며, 여기서는 아마도 그것이 그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대인 회당이 타협을 거부하고 전복적으로 행동하며 어떤 박해도 그들에게 가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하고 주의를 끌기 위한 편의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그룹은 다름 아닌 사탄의 회당입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제목, 예수께서 이 박해받는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 1장에서 사용하신 제목은 아마도 그들이 타협을 거부하고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을 수도 있는 유대인들의 손에 비방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제목은 첫 번째 장부터 교회와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라 하신 것을 주목하라. 즉 타협하지 못하고 신실한 증언을 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역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그분은 그들의 상황에 함께 계시고 또한 이미 죽으셨지만 살아나사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신실한 증인을 위한 궁극적인 대가로 죽기까지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시작과 끝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자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고 로마 시민의 손과 아마도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의 손에 가해지는 고통에 직면하여 견디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장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세 가지 전략에 주목하십시오. 요한은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단순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참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 그는 그들의 고통의 진정한 근원이 궁극적으로 사탄 자신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종말로서 존은 그들의 갈등의 본질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을 내다보면 로마 당국의 압력도 보이고, 유대 회당의 압력도 보이지만 요한은 12장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투쟁의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그는 그들의 투쟁의 진정한 본질과 그들의 투쟁과 박해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키려는 사탄 자신의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 내용은 12장에서 더 자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의 두 번째 전략은 그들이 인내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본성을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박해의 진정한 근원은 바로 사탄 자신입니다. 그리고 셋째, 저자는 10절에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귀나 사단이 다툼의 근원이 되어 너희 중 몇을 옥에 가두고 시험하여 열흘 동안 핍박을 받으리라. 이제 그 문구가 흥미롭습니다. 몇 년 전 처음 읽었을 때 왜 10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자는 예수께서 통찰력을 갖고 계시며 미래의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고 계시나요? 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열흘 정도의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열흘 기간은 무엇입니까? 언제 진행되나요? 저자는 왜 열흘을 선택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10일입니까? 나는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그렉 빌(Greg Beal)이 그 미스터리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0일 동안의 시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았던 다니엘서 1장과 12-15절에 대한 의도적인 암시임을 입증했습니다. 다니엘 1장 12-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에게 바쳐진 고기를 거부하고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11절부터 다니엘은 자기 세 친구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임명한 천부장인 경비대장에게 청컨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하시고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모든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의 용모와 당신의 용모를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대접하소서. 그래서 그는 이것을 하기로 동의하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다른 이교 제국과 이교 통치자의 압력을 받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상황에서, 요한은 이제 자신이 겪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험의 기간을 묘사하기 위해 다니엘서 10일 중 1장에서 이 주제를 선택합니다.

즉, 다시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상징한다고 확신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니엘을 회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을 받았지만 인내하고 좋은 판결을 받은 것처럼, 서머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한적인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시험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인내하도록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24시간의 10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시험을 받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상황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적대적인 이교 환경에서 시험을 받는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회상한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그들이 직면하게 될 어떤 시험의 기간도 용기를 갖고 인내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받는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생명과 보존을 약속받았습니다.

두 개념 모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목이 잘린 성도들이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핍박받는 교회에 약속된 것입니다.

요한이 설교하는 다음 교회, 혹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설교하시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2~17절입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서머나 북쪽에 있는 일곱 교회의 순환 경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버가모는 지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문화의 영향을 받는 교회를 쫓습니다. 버가모시는 도서관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교 신들을 기리는 성소와 제단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과 같은 신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이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은 뱀이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의료 분야 및 병원과 관련하여 구급차 및 이와 유사한 것들에서 해당 기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 실제로 사원을 건립한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역시 황제 숭배의 온상이었다. AD 29년에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이곳은 황제 숭배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 편지의 메시지를 12-17절에 빨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 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사탄이 그의 왕좌가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지킨다.

너는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사탄이 사는 성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락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범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희를 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리니 그것을 받는 자만이 알느니라. 그러면 다음으로 저자가 버가모 교회에서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적용된 그리스도의 독특한 칭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에 관한 세션 5입니다.